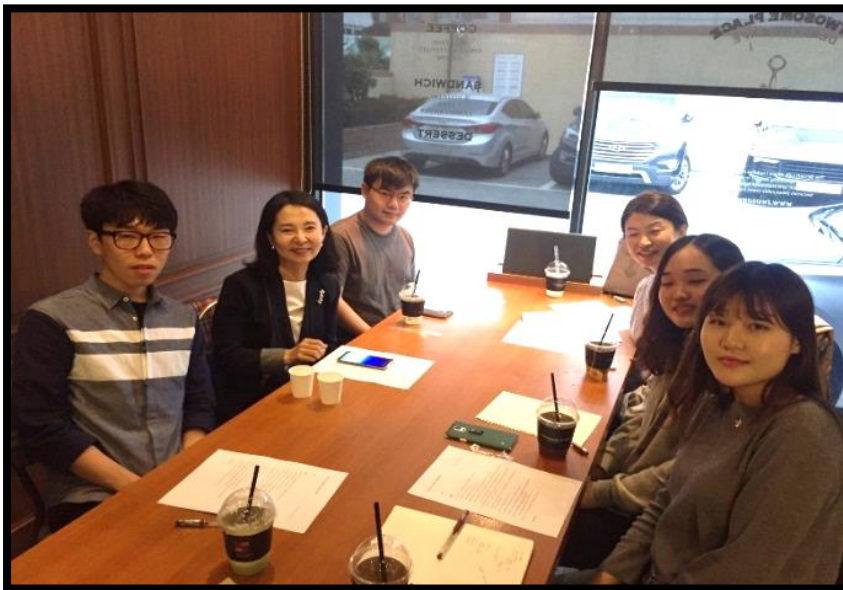


의료인문테마스쿨³호

히포크라테스를 찾아 그리스로
몸으로 직접 느껴보는,
그리스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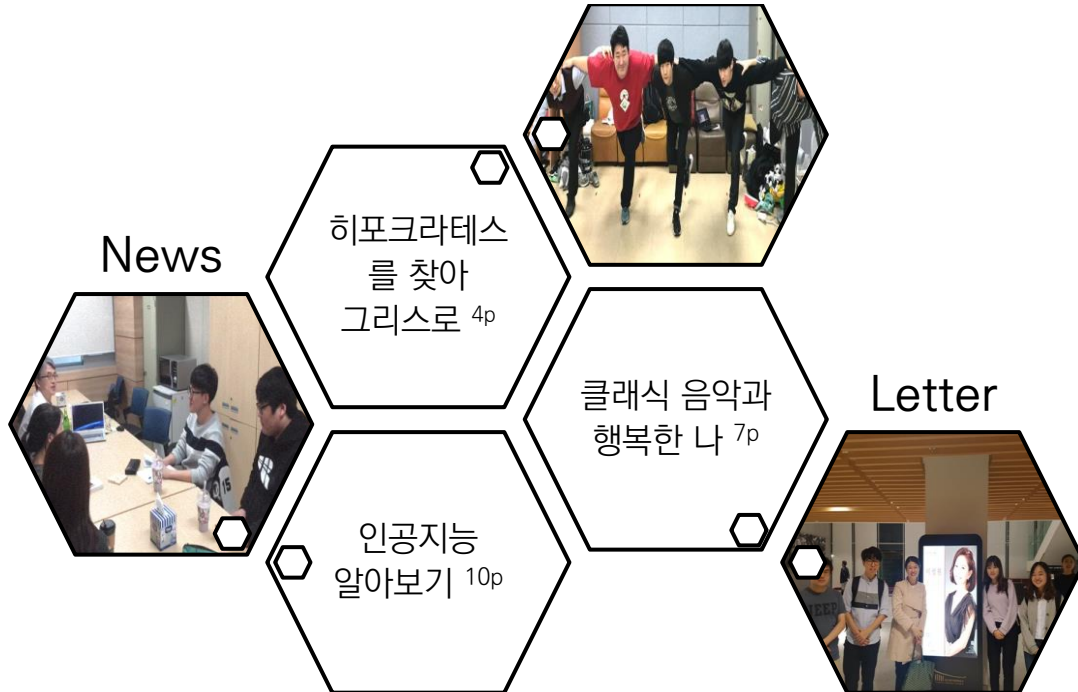


클래식 음악과 행복한 나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인공지능 알아보기
점차 발전하는 인공지능,
이런 과학 기술의 결말은?



Index



의료인문테마스쿨을 마치며

작성 / 의료인문테마스쿨 보도본부

2017년 2학기 의료인문테마스쿨은 현재 본과 1학년들에게는 처음 진행된 활동이었다. 평소에도 동기들끼리 모여 진행하는 조별활동은 많이 해보았지만, 의료인문테마스쿨을 통해 진행된 활동들은 평소의 조별활동과 분위기부터 사뭇 남달랐다. 아마 과제도 없고 정답도 없는 이러한 활동들이 아직 낯설었기 때문일까? 이렇듯 뚜렷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학생들이 조금은 힘을 빼고 자유롭게 생각과 느낌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평소 생각만 해두었던 일들을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겁 없이 달려들 수 있었던 것, 시와 인간의 경계에 대해 거리낌 없이 얘기해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 평소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던 클래식 음악과 오페라 그리고 그리스 문화에 다가가 볼 수 있었던 것, 여행들을 계획하고 발표하거나 의대생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바쁜 학교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을 수 있었던 것, 증례 속의 환자가 아닌 직접 환자들과 대면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었던 것, 역사를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나침반으로 활용해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의료인문테마스쿨이라는 지붕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어영부영 보내게 될 수도 있었을 시간들이 소중한 일탈이자 인생 공부의 추억으로 남게 되었고 학생들 스스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놓칠 뻔했던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음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News Letter 연재순서



오페라로 보는 인류애 (1호)

유럽 미술관 여행 (1호)



아름다운 이별 (1호)

근대 의학사 기행 (2호)



어쩌다 의대생 (2호)



도전하니까 청춘이다 (2호)



히포크라테스를 찾아
그리스로

클래식음악과 행복한 나



인공지능 알아보기

Newsletter – 01.

히포크라테스를 찾아 그리스로

취재 / 양승현 담당교수님 / 권오대 교수님 참여학생 / 김대욱, 김병규, 오준석, 오현서

2017년 11월 7일 오후 3시 30분, 의료인문테마스쿨 '히포크라테스를 찾아 그리스로' 조 취재를 위해 찾아간 루가관의 한 교실에는 참여 학생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업 전 4명의 학생 모두가 매주 있는 시험에 쫓겨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주말에 겨우 숨을 돌리는 번한 본과 1학년 학생들의 일상을 토로했고, 그런 학생들을 교수님은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다.

우리나라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낭송된 지 60년이 되고, 현재 41개의 의과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동안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다는 시각에서 이 수업은 시작 되었다. 가장 먼저 시작한 활동은 2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쓴 '선서'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고 해설한 책 '히포크라테스 선서' (계축문화사)를 읽는 것이었다. 이번 주에 해당하는 분량 '의사 윤리의 원칙'을 읽고 내용에 대한 감상을 교수님과 학생들이 간단히 나누었다. 옹고 그림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던 시절, '선서'를 집필했던 그의 사상과 철학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이후, '히포크라테스 선서' 원문을 그리스어로 읽는 시간을 가졌다. 필자는 그리스어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어 몇 단어 따라 하다 립싱크를 하는데 그쳤으나 다른 학생들은 조금 서툴지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선서를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를 듣다 보니, 시나 시조 등 고유한 개성을 가진 문학작품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작가가 없는 이유가 번역 후에 의미를 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국어 선생님의 말이 생각났다. 같은 이유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문화에 대해 알아본 뒤, 그리스어 원문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



언뜻 보기엔 'NARS' 공연을 위해 연습실에서 안무를 익히는 모습 같지만...



사실 의료인문테마스쿨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춤의 안무와 함께 한 것.

두 가지 활동이 끝나고 마지막 활동을 하기 위해 찾은 곳은 댄스동아리 'NARS'의 연습실이었다. 시끄러운 음악소리, 화려한 안무가 주를 이뤘던 이 곳은 어느새 잔잔하지만 경쾌한 고대 그리스 사람의 춤과 노래로 가득했다. 교수님과 학생들 모두 어깨동무를 하며 안무를 익혔다. 고대 그리스의 문화까지 체험해보자는 교수님의 열정이 아니었다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무대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며 '기출문제집'을 보지 않은 학생은 없을 터다. 대다수 학생은 교과서보다도 기출문제집을 많이 봤을 것이라 예상된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역시 시험 기출 문제를 중요시한다. 이런 행위들이 잘못되었음을 토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기출'에 의존하지 않고, 과거의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선배들이 거쳤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좋은 점을 본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충분

히 칭찬할 만한 행위다. 그렇다면 인생의 '기출' 문제는 무엇일까? 바로 '역사'가 아닐까 한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기출' 문제인 '역사' 공부에도 힘을 쏟아 역사 속 과거 인물들이 저질렀던 실수는 반복하지 않고 교훈들은 본 받았으면 한다.

Newsletter – 02.

클래식 음악과 행복한 나

취재 / 이상민 담당교수님 / 성우정 교수님 참여학생 / 김효정, 신가희, 한대현, 황성호

클래식 음악과 다른 음악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그 답은 ‘클래식’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중세에서 르네상스 시대까지, 교회가 음악의 거의 모든 것을 지배하다시피 하며 음악사가 진행되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기악음악을 ‘악마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성악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지만 바로크 시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클래식 음악이 본격적으로 힘을 받기 시작하였다. 못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논할 때, 바로크는 비발디, 바흐, 헨델 고전파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낭만파는 슈베르트, 슈만, 쇼팽, 멘델스존 등을 말한다. 각 시대마다 음악가들은 시대적인 업적을 남겼고 때문에 그 음악은 당시 시대를 반영하며 정서가 들어 있다. ‘클래식’으로서 가지고 있는 감성,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들어야 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9월 21일, 의료인문 테마스쿨의 ‘클래식 음악과 행복한 나’의 성우정 교수님과 조원 황성호, 신가희, 김효정, 한대현은 오후 7시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챔버 홀에서 열린 ‘이성원 피아노 독주회: 가을, 쇼팽의 낭만을 담아’를 감상하였다.





감상 후, 피아니스트이자 계명대학교 교수인 이성원 교수님과 인터뷰를 가졌다.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는데 선생님께서 슈만을 좋아하셨고 졸업 연주 때도 슈만의 곡을 한 기억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쇼팽을 특히 이번 독주회에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황성호 학생)

“쇼팽은 피아노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거의 피아노곡만 작곡하였죠. 피아니스트들이 쇼팽 곡을 제일 많이 연주하고 가장 가깝게 두고 있습니다. 쇼팽은 피아노의 시인이라는 말도 있죠.” (피아니스트 이성원 교수님)

“연주자의 입장에서, 곡에 담긴 슬프거나 기쁜 감정의 주제나 단락을 연주할 때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상상하면서 연주하시는지 궁금해요.” (성우정 교수님)

“네, 맞아요. 연습할 때 연기자처럼 상황설정을 하고 해요. 예를 들어 슬픈 감정을 표현할 때는 남녀간의 이별을 상상하고, 푸른 바닷가나 새싹이 돋는 배경을 설정하기도 해요. 피아노는 똑같은 건반이라도 어떻게 누르냐에 따라 표현하는 것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상상력 없이는 연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피아니스트 이성원 교수님)

“피아니스트로서 피아노라는 악기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되는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효정 학생)

“여러 화성을 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피아노는 한번에 10개의 화음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가 연습도 많이 해야 하지만 공부할 것이 많아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은 다른 악기를 배우면 너무 단조로워서 재미없다고 할 정도니까요. 피아노는 하나의 오케스트라이고, 독창이 아닌 합창을 표현할 수 있죠.” (피아니스트 이성원 교수님)

끝으로 이성원 교수님은 피아노 연주를 감상할 때의 태도에 대해 당부하셨다. 피아니스트들은 곡의 완벽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정말 유명한 대가라도 실수를 하고, 완벽하게 연주할 수 없다. 그리고 곡의 해석은 주관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곡의 특정부분을 해석한 감정이 피아니스트의 해석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태도는 덜 좋은 연주는 덜 좋은 대로 좋은 연주는 좋은 대로 그 자체로 즐기는 것이라고 하셨다.



음악이 산업화됨에 따라 요즘은 매일 새로운 음악들이 나오며 그 장르만 해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대중들의 기호와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 일주일도 안 되어 차트가 변동되고 인기를 잃게 되는 노래가 대부분이며, 계속 새로운 음악들이 나오면서 기존의 것들은 우리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클래식 음악은 다르다. 수백 년이 흘러도 온전히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마음을 울리는 음악인 것이다. 한번쯤 구식이 될 지 모르는 대중음악을 벗어나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며 마음 깊숙이 울리는 고전 그대로의 감동을 느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Newsletter – 03.

인공지능 알아보기

취재 / 김대영 담당교수님 / 박재복 교수님 참여학생 / 김혜진, 남준호, 이영은, 최우석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과학기술의 힘을 빌리며 살아간다. 사실 정도의 차이일 뿐,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 의존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를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다. 과연 과학기술의 끝은 어디일까?

2016년 3월 대한민국의 바둑기사 이세돌과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가 치렀던 바둑 대결은,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의 대체 영역과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만들기에 충분했던 이벤트였다. 이세돌 기사의 연이은 패배 후 따낸 금쪽같은 1승이 주던 희열감은, 오히려 바둑이라는 영역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기계에게 지배당할 것이라는, 나름의 예상했던 결말을 필자가 실감하도록 해주었다. 우리가 늘 기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순반복적인 일을 기계에게 맡기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스스로 배워나가는 ‘고효율’의 기계를 이길 ‘천재적인’ 인간은 점점 희귀해지지 않을까.

지난 11월 7일,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테마스쿨 ‘인공지능 알아보기’ 조에서는 박재복 교수님과 4명의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영화를 감상하고 이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감상한 영화는 『그녀(Her, 2013)』. 고도로 발달한 컴퓨터의 운영체제 즉, OS(Operating System, 작품 속 이름은 ‘사만다’)와 인간이 ‘서로’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묘사하는 영화다. 사용자의 성격과 스타일에 맞추어 세팅되는 이 ‘OS 인격체’는 동시에 여러 복잡한 일처리를 하는 것은 물론, 특정 상황에 대해 알아서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한 문장을 읽고서 ‘너무나 낭만적이다’ 라는 표현까지 하며 사용자에게 OS(‘사만다’) 자신의 감정을 말하기도 한다. 이렇듯 사만다는 주인공에게 여러 감정표현과 함께 조언도 해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최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한 주인공에게는 이런 사만다가 큰 힘이 된다.

사실 여기까지는 현재의 인간도 기계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별반 다를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로 구현된 소프트웨어 스스로가 인간에게 정서적인 자극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이 영화와 현실 사이의 꽤나 큰 차이점이다.

소프트웨어는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곧 감성이 아닌 논리의 언어다. 예를 들어, “저 슬퍼하는 아이에게 위로를 해주자” 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기계는 자신이 가진 데이터와 주어진 상황에 기반하여, 슬퍼하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적합한 형태의 ‘위로’를 찾아서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위로라는 것은 결국 위로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진정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기계가 판단한 ‘가장 적합한 위로’를 받고 아이는 기분이 나아질 수도 있지만, 공감하는 듯 흉내 내는 기계의 행동에 오히려 더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과 정서는 이성적 사고와 달리 일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논리성으로 흉내 내기엔 너무나 변칙적이고 가능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다. 설사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의 감정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공감법을 익힌다고 할지라도, 애초에 그리 하도록 프로그램 된 기계가 행하는 행동이라면, 프로그램 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공감에 비해 큰 가치가 없을 것이다. 기계가 하는 것은 순수한 공감이

나 교감이 아닌, 그저 프로그램 된 '흉내'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끝은 어딜까? 당연하게도, 인간과의 바둑 싸움에서 승리한 기계가 인간의 다른 영역에서 앞서지 말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최근 의료계 역시 이러한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모두 겸비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성마저 가질 수 있다면, 필자는 그것이 현재로서 생각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결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에 대해 다룬 영화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교수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영화가 주는 교훈의 울림이 더 깊고 오래간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